

새로운

교육방안

## 간호 진행 기록

### <연세의대 간호학과> 전 산 초

간호 진행 기록이란 병실에서 간호하는 동안 환자와 간호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간호원(또는 학생간호원) 자신이 직접 기록하는 것이다.

이 기록을 하므로써 간호원은 내가 환자에게 무엇을 했는지?, 환자에게 도움이 됐는지? 또는 내가 한 일이 잘못되거나 아니 했는지?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한편 임상지도교수에게는 무엇을 이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지?를 제시해 주고 도와 주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간호 진행 기록”을 쓰게 하는 것은 임상실습 지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새 교육방안(新教育方案)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 × ×

이 기록은 학생간호원으로 하여금 환자의 요구되는 것을 찾아내는 재간(skill)을 향상시키고 환자를 지도하고 환자와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이 대화를 통한 환자의 문제를 파

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하여 이미 배운 이론의 지식만으로는 실제에 부딪힐 때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또는 잊어버리고 말기 쉬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심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강의나 실험실에서의 연습 또는 role playing 등과는 다른 종류의 학습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학생간호원과 환자 사이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둠으로써 “Comprehensive nursing care”를 할 수 있게 학생을 준비시키고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 기록 내용의 견본

1. 당신의 환자 소개 : 박씨와 김씨 이 두 환자는 내가 이 기록을 쓰기 시작하기 2일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양쪽눈을 다 싸면 환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움직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어야만 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들은 자기

간 호 진 행 기 록 표

(양식 I)

학생 이름 ○ ○ ○ 병실○호:○째 날자○○년○월○일

당신의 환자의 소개 :		
학생간호원과 환자와의 회 화 기록난	학생 간호원의 의견난	임상지도 교수의 의견난
	이 난에는 학생 자신이 자 각하는 느낌과 자기 환자 의 느낌을 해석 기록한다.	

주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 쉽게 성내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 는 환자들인 까닭다.

(양식 II)

학생간호원과 환자와의 대 화 기록난	학생 간호원의 의견난	임상지도 교수 의견난
간호원 : 박씨 ! 저는 미스 티—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을 들보아 드리겠음 니다. 기분이 어떨세요? 박씨 : 고맙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당신의 무늬가 가리워졌 으면 정말로 시간을 말 할 수 없겠네요! 간호원 : 지금 꼭 7시반 입 니다. 그렇고 말고요 두 눈을 다 가렸다는 사실은 참말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경에서 참 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마 당신은 이 기회가 가 장 좋은 완전한 휴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 요. 그리고 수술전에 이	나는 환자가 등정 받기를 원하는 것을 느껴었다.  나는 나의 등정실과 이해 심을 환자에게 나타내 주고 싶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를 지금의 그 위치에서 다음을 가볍게 해 주고 격 려해 주고 싶었다.	

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이제 며칠 있으면 dressing 을 떼게 될 겁니다.

박씨 : 정말 나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간호원 : 그럼은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열려하지 마세요, 잠깐만 응수하세요, 저들 당신의 이웃인 옆의 환자를 일으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호원 : 안녕하세요, 김씨 저는 미스 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당신을 간호해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김씨 : 네! 꽤 잘 잔 셈입니다.

간호원 : 세수하시고 지금 쏘반 잡수시지 않겠습니까?

김씨 : 좋습니다. 이 Side ralis.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주는 것)을 좀 내려 주시겠습니까?

간호원 : 지금 곧 빼어드리겠습니다. 발등안 탄약을 위해 신중을 기해 누라고 올려 드렸던것 뿐이니까요. 이제 물을 가지고 와서 씻어 드리겠습니다.

간호원 : 김씨, 당신이 머리를 움직이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

나의 다음 움직임을 알게 하여 그를 안심시켰다.

나의 존재를 알렸다.

그의 음성에 분노가 깃들여 있음을 느꼈다.

잠깐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느꼈다.

내가 아침 간호를 하는 동안 그는 나의 도움을 받아 쉽게 모든 일을 하기를 원

박씨의 진정한 안심을 위하여 또 다른 생각을 꾀 보았는가?

세요. 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신과 협조할 수 있습니다.

김씨 : 왜 내 아내가 아직 오지 않을까요?

아침 8시까지 는 온다고 했는데요?

간호원 : 환자 방문 시간이 10시부터입니다.

아마 오는 중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집이 가까우세요?

김씨 : 아니오 우리 집은 인 천입니다. 그때 내 아내는 이 병원 근처에 방을 하나 빌렸습니다.

간호원 :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 부인은 참 생각이 깊으시군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씨 : 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49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잠시도 떨어져 살아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일원 하기 전까지는요.

간호원 : 당신은 정말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십니다. 자 이제 조반 잠수십시오. 밥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하시지요?

김씨 : 네 배가 곱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나는 이제 많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간호원 : 참 좋은 일입니다. 자—어서 잠수십

했다.

나는 김씨에게 지나친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겠다고 느꼈다.

나는 환자와 잘 알게 되기를 위해 노력했다.

시다. (밥을 먹여 준다)

간호원 : 박씨 ! 당신 조반  
상이 여기 준비됐습니  
다.

박씨 : 네 정말 배가 고프  
군요.

간호원 : 좋은 일입니다.  
여기. 밥, 시금치국, 계  
란부침, 나박 김치, 생선  
조림이 있습니다. 무엇  
부터 잡수시겠어요?

박씨 : 계란부터 식기 전어  
먹겠습니다.

간호원 : 네. 그러세요. 덕  
에서는 보통 조반에 무  
엇을 잡수세요?

박씨 : 글썽요. 저는 농촌에  
삽니다. 그래서 신선한  
계란과 밥, 국 그리고 신  
선한 김치를 주로 즐겨  
먹습니다.

간호원 : 좋다고 생각합니  
다. 그 이상 더 좋은 조  
반을 먹기는 쉽지 않겠  
습니다. 김치가 없어서  
안되었군요, 졸얼어다 드  
릴까요?

박씨 : 괜찮습니다. 한  
끼쯤은 ! 그러나 다음부  
터는 먹었으면 좋겠습니  
다. (그는 기분 좋게 조  
반을 끝냈다)

간호원 : 어느 분이 먼저 목  
욕을 하시겠습니까?

박씨 : 내가 먼저 할까요?

간호원 : 좋습니다. 그럼  
김씨께서는 잠깐만 기다

밥을 먹여주는 동안 그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을  
적한 기분을 전환시키려  
고 노력했다.

이것은 나에게 건강 교육  
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  
는지 발견했다.

내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  
보다 그들 자신이 걱정하  
는 것이 좋으리라고 느껴  
졌다.

“싫습니더”라고 그가 말 할  
수 있으리라고 당신은 생

려 주십시오. 괜찮으시겠어요.

김씨 : 괜찮고 말고요!

박씨 : 왜 나의 두눈을 다 싸냈는지 알 수 없어성한 눈까지도 나를 놀리논건가?

김씨 : 두눈을 다 싸면 것은 아름다운 간호원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야 그것도 모르슈?

간호원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 수술 후에는 가능한 한 잘 쉬어야 합니다. 만약 성한 눈을 안 싸매고 전과 같이 쓰면 수술한 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양눈은 자동적으로 항상 같이 일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박씨 : 오 그댜요. 그거 이 유가 그럴듯 합니다.

간호원 : 알아 들으셔서 기쁩니다.

(독육 시키는 동안 박씨, 김씨 또한 나 세사람이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사업 이야기 또는 박씨의 능으로 이야기의 뜻을 피웠고 우리들의 분위기는 명량했다.)

김씨 : 나는 이제 친대에 누워 있는 일에 지쳤습니다. 내 등이 몹시 쭈시고 배깁니다. 일어나 앉거나 쭈 절어 보아도 좋습

작합니까?

아마 그는 일찌기 이것을 발견하리만큼 준비해 있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예측했던 대로였다. 내가 인정했던 대로 일찌기 그에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기뻐다.

박씨와 김씨의 대화는 성립되는 것이, 그들도 역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놀랐을 게다.

나는 회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박씨, 김씨 그리고 나는 나 타나리 만큼 기뻐다.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기분은 우리 세 사람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니까?

간호원 : 아직 그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야만 당신의 눈을 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압력도 가해 지지 않고요. 자 이제 목욕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박씨 : 그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침상 정돈을 하는 동안 아직 그의 머리를 안전하게 가지라는 것을 이해시키기에 곤란했었다.)

※ 두사히 일을 끝내고 각별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

그는 아마 그가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는지를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머리를 잘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적당한 말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얻은 결과가 당황했던 것 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 결과는 더욱더 나 자신을 설명하기에 어려워지게 만들었다.

### 기록의 실제

1. 간호원이나 학생간호원은 환자와 같이 있어 간호를 하는 동안에는 기록(note taking)을 하지 않는다. 일단 간호가 끝난 후 제자리에 돌아가자마자 곧 자세한 경험에 관해서 기록해 둔다.

2. 기록은 치밀하고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문장을 작성하는

데 단어 나열에까지도 계획을 세워 써야 한다.

3. 환자의 느낌을 자각하는 것이나 또는 환자의 느낌을 분석하는데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며 기록을 위한 연구나 임상지로 교수와 연구하는 일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간호진행 기록”을 쓰는 것보다는 몇개를 깊이 연구하여 잘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4. 기록료가 작성된 후 임상지도 교수와 학생은 각각 개별적으로 “임상간호 진행 기록”을 공부한 뒤에서로 집담회(confERENCE)를 가진다. 그들은 이 집담회를 통해서 통찰력과 이해 그리고 가능한 활동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Conference에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실제경험을 잘 표현하고 설명할 좋은 기회가 된다. 대개, 이 conference에서 임상지도교수는 학생들은 그들이 기록한 기록 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 학생간호원은 환자 간호를 위해 주어진(assignment) 일들과 “간호진행기록”을 위한 환자 관찰 즉 간호 진행 기록을 쓰기 위해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의 기분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환자간호를 위해 받은 여러가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병행시켜야 한다.

6. 임상지도 교수가 생각해야 할 일.

임상지도 교수는 학생들이 기록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학생의 계획을 도와 환자의 개별적 간호 및 환자의 특별한 요구에 접하는 것을 수정 또는 가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7. “임상지도 교수”는 학생과 개별적으로 논의(discuss)하면서 학생의 “간호진행기록”에 무엇이 내포

(involve)되어 있으나 판단하고 이를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용하도록 한다. 학생이 부딪친 환자가 가진 정서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또한 교육적인 요구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도록 한다.

8. 임상지도교수는 이 기록을 쓰기 위해서는 학생 간호원과 환자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단속하게 진행될 때, 환자의 기분을 분석할 수 있고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학생에게 환자와의 communication을 잘 할 수 있는 방법(skill)을 지도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 “간호진행기록”의 성과

이 기록을 쓰게 하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던 우연히 빠지거나 또는 잘못하여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며,

환자 간호 teaching을 위한 전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오직 한가지 방법이며 꼭 가르쳐야 하지만 가르칠 때(teaching)는 늘 제외되곤 하는 간호술의 활동적인 연구 지도의 좋은 방법이다.

이 “간호진행기록”은 다른 교육방법과는 대치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방법은 교습(teaching)의 지름길



(short cut)이 될 수도 없으며 또는 쉬운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직업인으로써의 간호원 (professional nurse)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에 간격 (gap)을 메꾸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학생 (간호원) 과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몇가지 제안

진실로 환자의 평안과 그들의 문제해결을 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은 때때로 그들의 계획에 합정 (난관)에 빠지게 되는 수가 있다. 그 원인을 규명해 볼 때 대개 몇가지의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살펴보면로 장애물을 피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도움이 될까 한다.

#### 1. 대화의 주제 (主題)가 바뀔때.

환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떤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때 간호원은 그 주제를 바꾸어 버릴 때가 있다.

예를들면 어떤 환자와 학생 (간호원)이 대화를 하던 중 그 환자가 그날 아침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학생 (간호원)에게 호소하기를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나도 병

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었지요. 그때 나는 다시 어머니를 만나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환자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간호원의 대답은 “자! 우리 이제 목욕을 합시다. 당신의 침상을 갈아드릴 흠이불을 가지러 갔다 오겠어요.” (환자는 계속해서 가만히 울고 있고 간호원은 방을 나왔다) 이 예를 볼 때 아마 학생 (간호원)은 이 환자의 죽음에 대한 말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학생은 침상 복욕이란 안전한 문제 (topic)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옮겨 버리고 만것 같다. 이 환자의 불안과 슬픔은 죽음에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학생은 자기가 환자의 불안을 조정 (control)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환자가 울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이 머무러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간호원은 그가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당한 기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으며 이런 경우 대답이나 이야기가 필요없고 단지 조용히 그와 같이 있어 주는 것, 들어 주는 것으로 족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성질이 다른 예로는 학생 (간호원)이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에게 맡겨진 일 (assignment)을 끝마치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는 까닭이다. 즉

간호원 : 안녕히 주무셨어요.

환 자 : 네.

간호원 : 나는 미스 리입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좀 어  
떻게요?

환 자 : 좀 낫습니다. 그러나 등  
이 그냥 몹시 아파서 괴  
롭습니다.

간호원 : 저, 의사의 명령에 의해  
배뇨를 하고 소변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배  
뇨하기 시작하다)

일에만 허덕이는 간호원은 환자와  
의 대화 즉 의사 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장애가 아닌  
가 생각된다.

## 2. 한편의 의견만 주장할 때

학생(간호원)은 자기의 의견만 이  
야기하여 환자의 입장이나 관심사,  
또는 피로움에 대하여 일방적인 해  
석을 하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할 때  
이는 진실한 원만한 문제탐구와 의  
사 소통을 방해한다. 이런 독단적인  
간호원의 이야기가 때로는 도의적이  
고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환  
자의 경우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  
게만 생각되지 않을 것이기에 인간  
특히 몸과 마음이 약해진 환자의 심  
리적 상태로는 문제에 원인이 된다  
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한다. 예  
를들어,

환자 : “저 오늘 아침 죽을 안먹

었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죽단 주고”

간호원 : 네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은 의사의 명령에 의한 특  
별식입니다. 그러니 그것  
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환 자 : 네 아닙니다만 아무 맛도 없  
고 첫째 배가 고파서요.

간호원 : 물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 때문  
에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  
실을 알아야 합니다. (식  
사가 끝난 후에)

간호원 : 목욕 하십시오.

환 자 : 아니요, 쉬고 싶습니다. 목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  
일 할 필요도 없고 또 목  
욕을 너무 오래 해요.

간호원 :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목  
욕을 하고 나면 더 편안  
하게 느낄 겁니다. 어서  
하십시오.

환 자 : 네……알았어요. 어서……  
(체념하는 표정이다)

환자는 자기 식사와 불편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설명하려고 했었다.  
간호원은 환자의 느낌에 대한 설명  
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해버리  
고 말았다. 한 예를 들어 환자가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정말 배가 고프지  
요? 이렇게 대답하므로써 그의 배도  
를 좀더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학생(간호원)은 틀림없이 모든 환자가 똑똑한 하얀 편안하리라고 단정했다. 이런 생각은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 3. 능답이나 부적당한 설명으로 안도감을 주는것

학생(간호원)의 잘못되거나 부적당한 의견이나 해석은 환자로 하여금 그의 열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 예를들면

(첫째 예와 둘째 예를 비교해 보라)

1. 간호원 : 안녕히 주무셨어요? 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환 자 : 네. 이때로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간호원 : 의사에게 퇴원할 것을 이  
야기했습니까?

환 자 : 아니요. 그는 나를 가두  
어 두려고 하지요.

간호원 : 아마 딱터 리—는 멀지  
않아 당신을 기쁘게 할  
겁니다. 이제 곧 집에 가  
시게 될 겁니다. 그럼 목  
욕할시다.

환 자 : 그러세요.

회화는 목욕하는 동안 잘 진행되  
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집에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느낌(feeling)  
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아마  
이 간호원은 친절하게도 환자의 불  
안을 없애 주기를 원했으리라고 추

측할 수 있다.

둘째 예의 간호원은 환자가 집에  
간다는 것에 대해 대답했던 것이다.

2. 환 자 : 나는 여기서 일어나 집으  
로 가고 싶습니다.

간호원 : 당신은 집에 가기를 몹시  
원하고 계시는군요?

환 자 : 네. 집에 가야 합니다. 나  
는 지금 2주간의 휴가를  
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휴가를 말할 수  
있을런지? 만일 내가 얼  
마나 더 오래할 수 있을  
런지 알았다면 좋았을 것  
을 그리고 또 언제부터 일  
하려 나갈 수 있을런지  
도…….

대화가 이렇게 된다면 환자는 자  
기가 가진 불안과 문제를 간호원에  
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즉 환자가 집  
에 간다는 것에 관하여 초점을 두는  
것을 파악한 간호원은 대화를 그 방  
향으로 이끌어 환자를 격려하고 설  
명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또  
다른 방향으로 지켜나가게 했을 것  
이다. 그리고 환자가 지닌 사회경제  
적인 요구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 4. 결론으로 뛰어 들기를 서둔다

환자의 말이나 문제의 전체적인 상

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급히 결과에 도달하려고 할 때, 또는 급하게 문제해결의 결말을 지으려고 할 때 환자와의 대화는 끊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얻어질 결론이나 해결이 못된다. 예를 들면, 오른쪽 팔과 왼쪽 골반의 골절로 불편하여 호소하는 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경우.

환 자 : 등이 쭉십니다.

간호원 : 단일 당신이 당신 쪽으로 돌아누우시면 훨씬 편안할 겁니다.

환 자 : 어느 쪽이요?

간호원 : 의사의 말이 양쪽 다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덜 아픈 쪽이 좋겠지요. 자 내가 도와 드리지요. (간호원은 환자의 협력을 바라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돌려 눕히기 시작했다).

환 자 : 안돼요 할 수 없어요. (소리 지른다).

간호원 : 자 이젠 등을 내리고 편안히 누워야 합니다. 그래서 약을 (진정제) 쓰지 않고도 무엇이든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등마찰이 도움이 될 겁니다. (환자의 자티웃 등을 올리고 등마찰을 시작한다).

환 자 :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만! 그만! (안타까히고 그만 두기를 호소한다).

이 학생(간호원)은 아마도 일을 완수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또 환자의 문제(여기서는 back pain)를 속히 해소시키려고 한 모양이다.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환자가 자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환자의 불편하였던 원인이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골절 환자의 불편은 침상의 불편한 위치 때문에도 방해될 수 있는 것이며 이 환자는 이미 위치변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경험한 환자라고 볼 수 있다. (대화중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신체적 간호를 해줄때 환자의 정서적인 도움도 반드시 병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 환자는 위치 변경이나 등마찰에 대해서 그의 기분을 말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예의 간호원은 어떻게 하였나 비교해 보자. 이 간호원은 환자의 어려움을 좀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의 고통이나 의견을 인정해 주면서 진행했다.

환 자 : 내 등이 쭉십니다.

간호원 : 어디가 아프셔요?

환 자 : 전부 다 그러나 주로 가운데가 더 해요. 무엇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간호원 : 그렇게 오랫동안 똑바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몹시 불편하셨겠어요.

이제 편안하신 쪽으로 돌아 누우시면 내가 등마찰을 해드리겠습니다.